

“정보사회에 있어서 청소년의 심성교육에 대한 고찰 - 유교의 입장을 중심으로-”에 대한 논평

한 내 창
(원광대학교)

I. 문제의 발상과 관련하여

현대 문명의 각종 문제가 교육의 잘못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동의한다. 현대 교육이 심성·인성 교육을 소홀히 하고 정서적 능력이나 도덕적 인격 양성보다는 주지적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감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 위주의 교육이 현대 사회문제 발생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한다. 그러나 “현대 문명의 잘못은 곧 전적으로 교육 때문”이라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교육은 가능성의 인간을 배출해내는 것이지만 완성된 인간을 배출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대 사회의 구조가 사회문제 발생의 근원지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교육을 잘 시키면 현대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겠지만, “인간성 완성”의 교육만으로 현대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교육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기는 하지만 만능 열쇠는 아닌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교육의 목적과 그 효과에 대해 유연하고 겸허한 자세로 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발표자는 “유교의 입장에서 청소년 교육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겠

다”고 하였다. 그래서 본 토론자는 유교의 입장에서 본 청소년 교육의 목표와 그 방법론, 문제점과 해결책 등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본 토론자도 현대 문명의 새로운 틀잡음에 있어서 유교와 같은 전통적 사상이 재조명되어야 하고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다. 그래서 그 방법론적인 대안들을 기대하고 있었다.

Ⅱ. 청소년 교육 목표와 방법에 대한 유교의 관점

발표자는 유교의 기본 사상에 기초하여 사람은 본래 성품이 선하므로, 사물에 접하여 측은(惻隱), 수오(羞惡), 사양(辭讓), 시비(是非)의 감정을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사람은 인의예지(仁義禮智)의 덕을 갖추고 있고 교육은 이를 더욱 보존하고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하였다. 인간의 내적 도덕성의 확충과 발현을 통하여 선을 실천하고 이러한 선한 본성이 자연스럽게 표현되도록 하면 된다는 것이다. 토론자는 유교의 인간 본성에 관한 가정에 대해 동의하지도 또는 반대하지도 않는다. 물론 이러한 가정은 교육 방법론의 정립에서 매우 중요한 출발점을 제공해주지만, 반드시 이러한 선형적 가정이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유교 교육의 방법을 소학(小學)과 대학(大學)으로 분류하였다. 소학은 규범적 예절 덕목을 습득토록 하는 것이고, 대학은 도덕의 기초 윤리를 습득케 하는 것이라 하였다. 본 토론자는 규범적 덕목들과 도덕적 윤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발표 논문에서는 도덕적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왜 어떤 측면에서 도덕적 교육이 필요하고, 어떻게 도덕적 교육을 하여야 할 것인지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규범적 덕목들이 다만 덕성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인간적 도리” 정도로 주장된다면 이는 교육의 방법론으로 다소 부족하다고 느낀다. 왜 이러 이러한 규범적 덕목들이 현대 사회에서 필요한지를 현대사회의 구조 및 작동과 관련하여 연계시킬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과거 전통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했던 통제 규칙(norms for social control)을 현대인들에게 기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러한 경우에 그 규범은 합리적 설득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실행과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교적 도덕 원리의 제시와 이에 바탕한 규범적 덕목들의 제시, 그리고 현대 사회의 구조와 작동에 필요한 덕목들의 분석에 기초하여 유교적 도덕 원리와 규범적 덕목들이 어떻게 유용한지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Ⅲ. 정보 사회에 있어서 유교 교육

따라서 정보 사회에 대한 예리한 분석이 선행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보사회에 대해 단지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회,”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사회,” “주체성과 창의적 도덕성이 요구되는 사회” 등의 낙관적 견해 제시는 그 자체 정보사회에 대한 계급론적인 편견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유교 교육의 방향 제시와 연관 관계를 제시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하지 못한다. 말 그대로 그렇게 좋아지는 사회라면, 그러한 사회에서 어떤 인간형이 요구되고(그는 ‘주체적·창의적 인간, 자율적 윤리 규범을 내면화한 도덕적 인간이 요구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매우 피상적인 논의라 생각된다), 어떤 윤리적 규범들이 필요하며, 어떤 제도적·실천적 방법들이 필요한지를 명시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보사회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와 분석이 정보사회에 필요한 유교 교육의 원리와 방향 제시를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지식 뿐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고, 가르침 뿐 아니라 모범이 필요하다는 원리적 주장이나 ‘주체적·자율적 인간 교육,’ ‘개방적 교육제도,’ ‘다양한 가치 교육,’ ‘유연한 사고 습득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어떤 의미에서 발표자가 분석한 유교의 교육 원리와 연결되는지 애매 모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단지 유교의 이상형적 인간상을 제시하고, 미래의 바람직한 교육 방향을 제언하고 있을 뿐 정보 사회 환경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보사회에 있어서 청소년의 심성 교육’의 방향을 제언하는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정보 사회는 어떤 사회이기 때문에 유교는 어떤 덕성을 강조해야 하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졌다.

따라서 본 토론자가 기대하였던 현대 문명의 새로운 틀잡음에 있어서 유교와 같은 전통 사상의 재활용 방안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을 갖게 되었다. 유교 교육의 새로운 적용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리적 필요성의 주장이나 또는 자잘구레한 덕목들의 제시 및 이의 강요보다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윤리적 방향의 제시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윤리에 기초하여 합리적 설득력을 갖춘 새로운 규범적 덕목들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곡 선생이 유년기에 지켜야할 17개 조목과 같은 규범적 통제 항목들의 기계적 적용은 유교의 본질을 오히려 상실케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본다. 미래 정보 사회에 맞는 윤리와 규범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적·행동적 방안들이 제시되었어야 한다.